비수도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 306개 과제 선정… 향후 2년간 총 28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신규 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나뉘며, 각각 157개와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포항공과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기준을 완화해 연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비율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 과제는 73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25.9%), 모빌리티(24.0%), 바이오(22.6%), 에너지(20.7%)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으며,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포함돼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선정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바이오 제외 기준)로 나타났으며, 바이오 분야는 평균 407.9%에 달해 고집약 연구개발 중심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 과제로는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 물류 관제 플랫폼, 디지털 PCR 기반 진단 기술, 엣지 인공지능 기반 검사 모듈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평가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기술인력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질환' AI 기반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발표… 예방 중심 동물의료 체계 구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반려동물의 연령별 주요 질환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82개 동물병원에서 수집한 약 50만 건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반려견 22만 건, 반려묘 3만9천 건을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했다. 반려견은 △1세 이하 △2~5세 △6~10세 △11세 이상, 반려묘는 △2세 이하 △3~8세 △9~12세 △13세 이상으로 나뉜다.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주요 질환 유형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은 어린 시기에 유치잔존이나 잠복고환 등 성장 관련 질환이 많고, 성체 이후에는 피부·비뇨기 질환이 증가했다. 노령기에는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졌다.

반려묘는 어린 시기에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비중이 높았으며, 성체 이후에는 비뇨기 및 구강 질환이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노령기에는 비대성 심근병증,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질병 특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연령별 예방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물론, 반려동물 보험상품 개발과 보장체계 개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AI 분석을 결합해 반려동물 생애주기를 과학적으로 구분한 연구"라며 "예방 중심 동물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예방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 협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농협경제지주, 협력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협경제지주가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농업용 필름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및 민생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가 석유화학 기업과 협력해 필름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면, 제조업체가 이를 활용해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고, 농협을 통해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구조다.

시범사업은 지역농협 직영 필름공장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예농협에서 우선 추진된다.

산업부는 한화솔루션과 협력해 원료를 공급하고, 진주원예농협은 이를 활용해 생산한 필름을 전국 6개 농협 자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필름은 전반적으로 확보된 상태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6월까지 필요한 물량 대비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 물량 조정과 추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농업용 필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협업은 정부의 원료 공급 지원을 통해 필름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첫 사례"라며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특수목적기계 디지털 전환 지원

'A-SW 시장출시제품 기획 및 설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특수목적기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김제시, 전북테크노파크는 '특수목적기계 디지털 전환형 개방형 A-SW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A-SW 시장출시제품 기획 및 설계(Track 3)'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기계 등 특수목적기계 기업이 기존 제품에 응용소프트웨어(A-SW)를 적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지역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둔 중소·중견기업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다.

평가를 통해 8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며, 협약 체결 후 사업비의 50%를 선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기술기획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등 필수 항목과 △사업화 기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핵심 기능 정의와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구조 설계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규택 원장은 "특수목적기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과 협업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5월 4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꽃 한 송이로 분위기 전환"

농촌진흥청, 5월 맞아 실내 꽃 활용 제안

농촌진흥청이 5월을 맞아 실내 분위기를 밝히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꽃 생활화'를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육성 꽃 품종을 소개하며, 꽃을 활용한 실내 환경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꽃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습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실내를 화사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장미가 적합하다. 추천 품종으로는 밝은 붉은색의 '루비레드', 별 모양 꽃잎이 특징인 '핑크별', 색감이 독특한 '환타스파클' 등이 있다. 장미는 적은 수량으로도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절화 수명이 비교적 길다는 장점이 있다.

간편한 공간 연출에는 거베라가 적합하다. '페더핑크', '소미', '반하나' 등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품종이 있어 한두 송이만으로도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최근에는 소형·폼폰형·스파이더형 등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거베라 '반하나'

꽃병에 꽂아 감상하는 절화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르고, 물은 5~7㎝ 정도만 채우며, 보존제나 설탕·식초 등을 활용하면 꽃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30일 여성농업인단체 8곳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농작업 부담 완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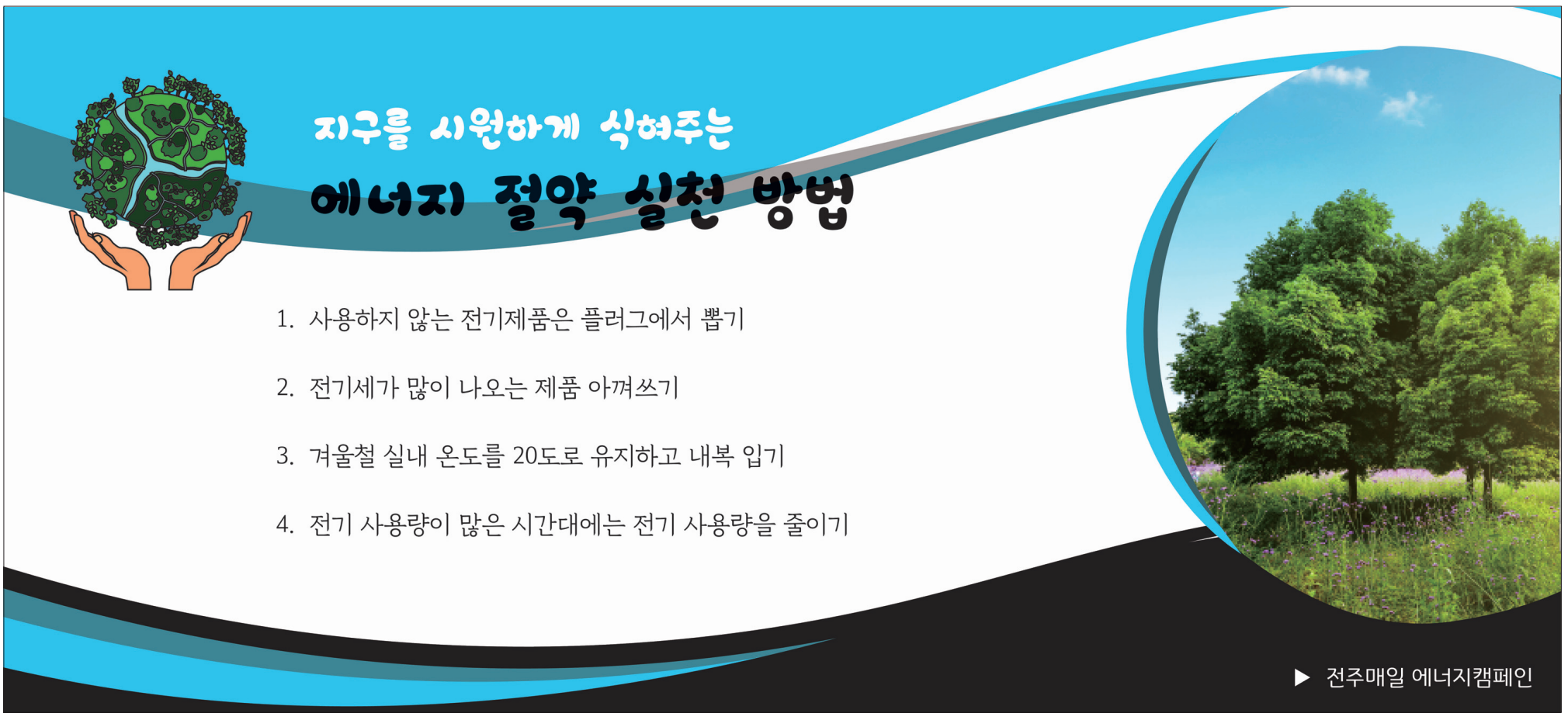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과 간담회…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농촌진흥청이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농기계 개발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30일 농업공학부에서 여성농업인단체 8곳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농작업 부담 완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주요 여성농업인 단체가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은 여성과 고령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개발 현황과 함께 2026년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교육 일정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도입을 추진 중인 근력 보조 착용형(웨어러블)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